

부산지역 문화 공간의 활성화를 모색하다.

(민간 운영 문화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부

개회식(사회 : 고민지 아나운서[음악당라운 대표])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

2부

토론문 발표 및 자유토론

주제발표

- ◆ 발제1 - 부산지역 민간운영 문화공간 현황과 역할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 발제2 - 민간 복합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김은숙 스페이스 움 대표, 문화기획가)

패널토론

- ◆ 좌장:
 - 이일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 ◆ 토론:
 - 조봉권 국제신문 기획에디터 겸 기획탐사에디터부장
 - 서승우 (재)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 김혜린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류기정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이사

질의응답

폐회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 국회의원 전재수입니다.

먼저 <민간 운영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공간은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공간은 시민들의 활동 반경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내 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적인 문화공간에서 접근성이 높은 민간 문화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민간 문화공간의 특성상 예술가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예술가들은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민간 문화공간은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촉진,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등 공적인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민간 문화공간은 민간 운영체의 한계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부분의 문화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간 운영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당국을 비롯하여 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모인 만큼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잘 모아 부산지역의 문화공간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 제 I -

부산지역 민간 운영 문화공간 현황과 역할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부산지역 민간 운영 문화공간 현황과 역할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부산지역 문화공간의 현황과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문화공간이 가지는 장소적 가치에 대해 생각할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타자 및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기억을 구성하는 존재인데, 장소와 관련해 논의되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소개한다.

○ 비장소 vs 제3의 장소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는 장소를 ‘인류학적 장소’와 ‘비장소’로 구분하였다. 인류학적 장소의 공통적 특징으로 정체성, 관계, 역사를 들면서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 역사성,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유기적인 사회성을 창조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비장소의 경우 대형 쇼핑몰, 현대식 주거단지, 디지털 매개체가 지배하는 도시공간, 멀티플렉스 영화관, 공항 등을 예로 들면서, 고독한 계약성에 기반한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비장소의 이용자들은 개인과 공적 기구 사이의 비인간적인 매개물(티켓, 여권 등)에 개별적으로 결합되는 고립을 경험한다고 말한다.¹⁾ 물론 비장소가 꼭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장소에서 느끼는 감정은 고독한 채감에 앞서 막연한 공포감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 버그는 제1의 장소인 가정, 제2의 장소인 일터나 학교 외에 목적 없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제3의 장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3의 장소란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 밖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격식 없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사람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주어지는 역할을 넘어 다른 교류의 장을 필요로 하고, 그곳에서 ‘비공식적인 공공생활’을 함으로서 사회적·능동적 활동을 통해 경험의 질이 높아짐을 지적한다. 제3의 장소의 기능들로는 일상 시간 중 잉여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알 수 있는 것, 구성원들에게 동화되거나 새로운 도모를 할 수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위 흥반장과 같은 공적 인물을 만나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즉 제3의 장소에서 우리는 단순한 한숨돌림의 시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1) 정현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2013, pp.117.~120.

부산지역의 문화공간, 특히 민간 문화공간은 공연장이자, 갤러리아자, 동네의 커뮤니티 장소로서 기능하면서 제3의 장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낮은 문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장소에서 느끼는 막연한 공포감보다는 안전가옥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슬세권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 문화공간의 역할들도 강조되고 있다. 민간 문화공간의 공공적 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고 본다.

2. 부산지역 민간 운영 문화공간 현황 - 2020 부산 문화지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부산지역 공연장, 갤러리, 서점, 공방 구군별 분포 현황

2020년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중 문화공간의 경우 공공 문화기반시설 외에도 서점, 공방, 갤러리, 민간 공연장 등의 구군별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사실 민간 문화공간의 경우 정확한 집계가 되어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다양한 경로로 전수조사한 결과라서 정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 문화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적인 유희 정도를 파악하는 데 만족하면서 추후에 더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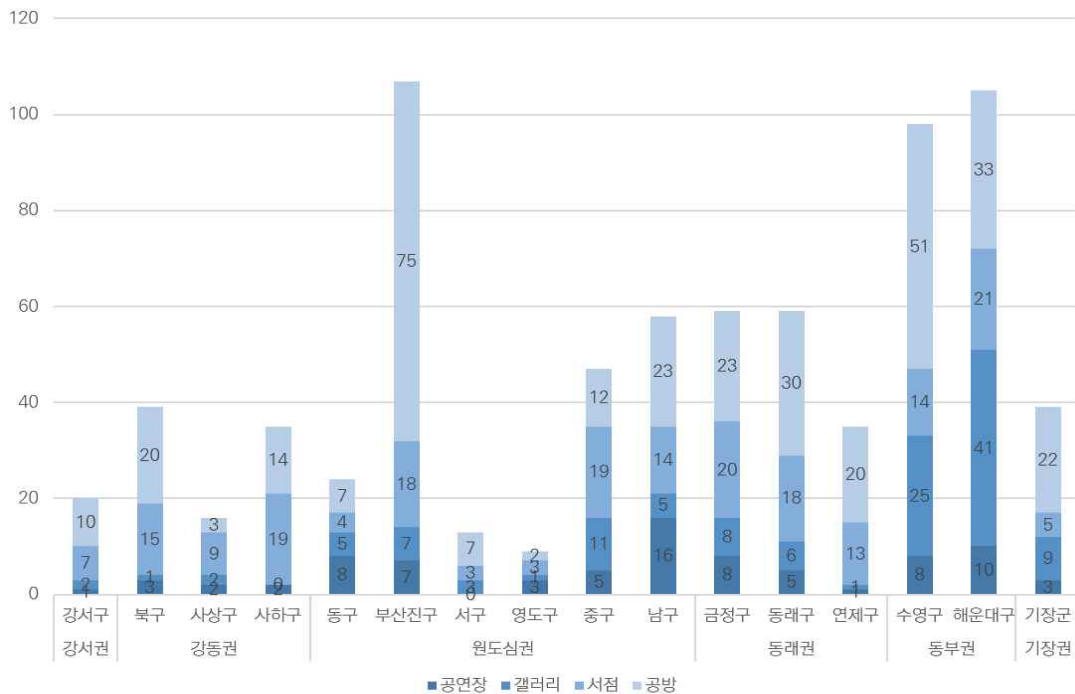
2020년 1월 기준으로 부산지역에는 총 82개의 공연장, 갤러리 127개소, 서점 202개소, 공방 352개소가 있다. 공연장의 경우 공공 운영 공연장은 39개, 민간 운영 공연장은 43개이다. 공연장의 반 이상이 민간 운영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연장은 남구, 해운대구, 갤러리는 해운대구, 수영구, 서점은 해운대구, 금정구, 공방은 부산진구, 수영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를 6대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원도심권에 258개소, 동부권 203개소, 동래권 153개소, 강동권 90개소, 기장권 39개소, 강서권 20개소가 있다. 권역별로 절대적인 공간 수로 보면 원도심권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순위가 다소 달라진다. 2020년 기준 부산지역 인구 만 명당 기준으로 문화공간 수를 살펴보면 동부권이 3.46개, 원도심권 2.58개, 기장권 2.25개, 동래권 2.12개로 조사되었다. 반명 강동권은 1.08개, 강서권은 1.46개로 타 권역에 비해 인구 구성 대비 다소 낮은 문화공간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부산지역 내 동서 지역 간 격차가 공간 수로도 파악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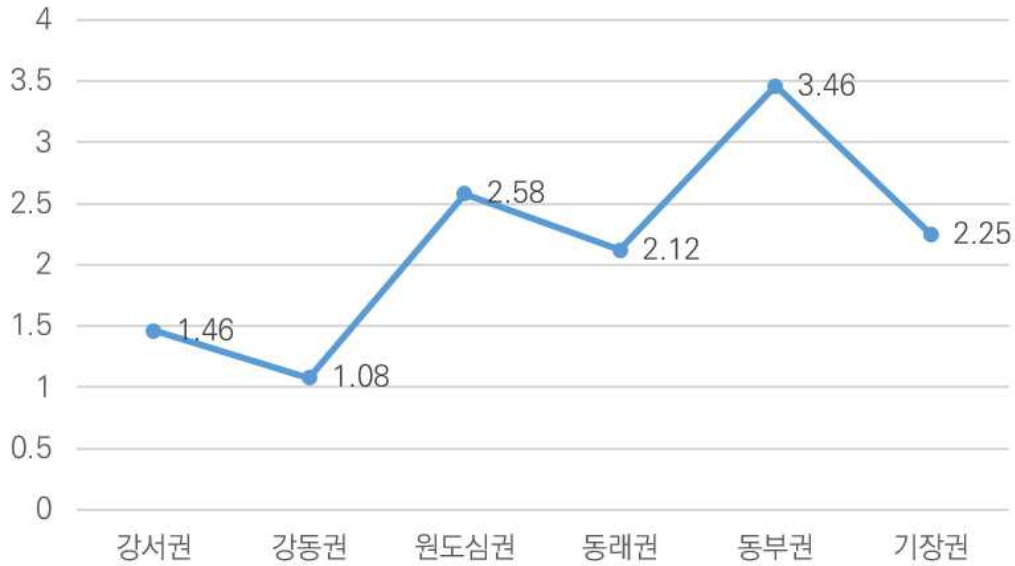
[표 1] 부산지역 구군별 문화공간 분포 현황

구군	공연장			갤러리	서점	공방	합계
	합계	공공	민간				
강서구	1	—	1	2	7	10	20
금정구	8	3	5	8	20	23	59
기장군	3	2	1	9	5	22	39
남구	16	6	10	5	14	23	58
동구	8	3	5	5	4	7	24
동래구	5	3	2	6	18	30	59
부산진구	7	5	2	7	18	75	107
북구	3	3	—	1	15	20	39
사상구	2	1	1	2	9	3	16
사하구	2	2	—	—	19	14	35
서구	—	—	—	3	3	7	13
수영구	8	1	7	25	14	51	98
연제구	1	—	1	1	13	20	35
영도구	3	3	—	1	3	2	9
중구	5	2	3	11	19	12	47
해운대구	10	5	5	41	21	33	105
부산시(계)	82	39	43	127	202	352	763

[그림 1] 부산지역 공연장, 갤러리, 서점, 공방 구군별 분포 현황



[그림 2] 인구 만 명 대비 부산지역 권역별 문화공간 수 비교



3.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중 문화예술공간 부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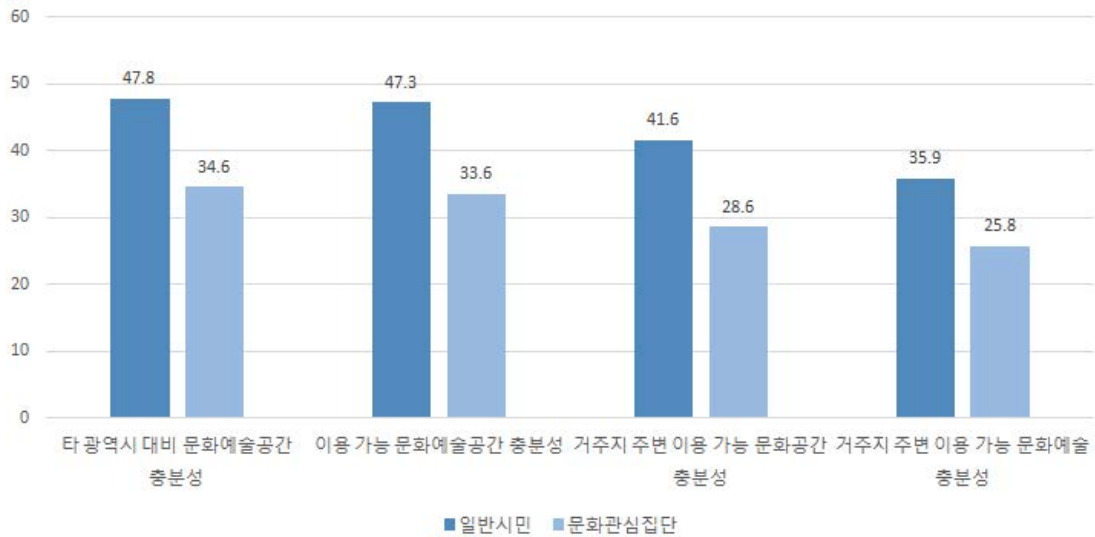
그렇다면 부산시민들은 문화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2021년 부산문화재단 정책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는 부산시민 2,000명과 부산 문화재단 회원 및 생활문화동아리 회원 등 문화관심집단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관람 및 활동 현황 외에도 문화공간 이용 현황, 부산 지역 문화환경 평가, 문화예술활동 견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활동의 변화 등을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부산지역 문화환경 평가 중 공간 관련 사항

먼저 부산지역 문화환경 평가에서는 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구성하였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 문화예술공간이 충분한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충분한지, 나의 거주지 주변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충분한지 물어보았다.

부산광역시 문화환경 평가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0% 이하가 긍정 응답률을 보였는데 객관적인 문화공간의 충분성보다 자신이 이용가능한 공간의 충분성에 더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거주지 주변 문화공간의 충분성은 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반시민에 비해 문화관심집단이 더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충분성에 대해서 기장권, 동래권 거주자의 긍정응답률을 높은 반면, 강서권, 강동권 거주자의 경우 긍정응답률이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림 3] 부산지역 문화환경에 대한 부산시민 견해(긍정 응답률, %)



○ 부산시민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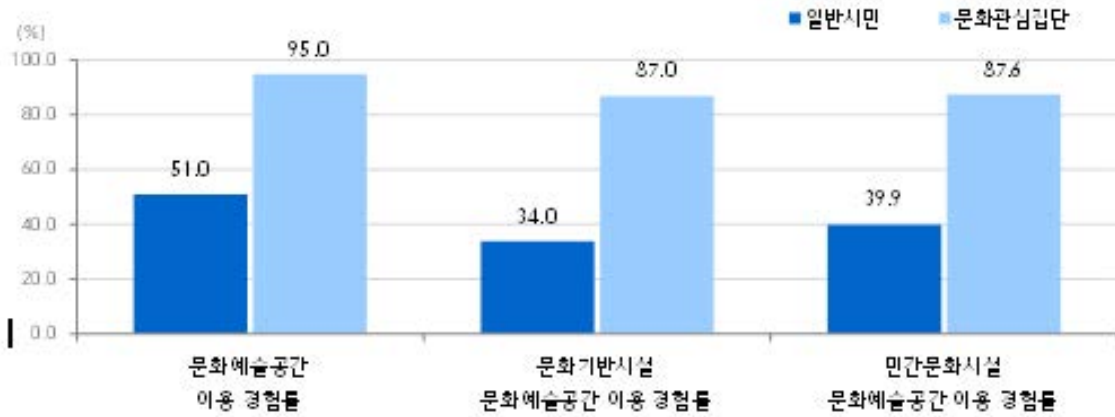
최근 1년 이내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률 질문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문화관심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시민의 51%, 문화관심집단의 95%가 1년 이내 문화예술공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에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과 민간문화시설의 이용 경험률은 문화기반시설(일반시민 34%, 문화관심집단 87%)과 민간문화시설(일반시민 39.9%, 문화관심집단 87.6%)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강서권 거주자는 경험 없음, 기장권, 동래권, 동부권 거주자는 경험있음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 문화시설 중 경험률이 높은 시설은 일반시민의 경우 서점과 민간 공연장, 작은도서관, 문화관심집단의 경우 서점, 갤러리, 민간 공연장 순이다. 이 중 3회 이상 이용한 시설은 일반시민은 서점과 민간공연장, 작은도서관, 문화관심집단은 서점, 작은도서관, 갤러리 순이다.

문화예술공간의 이용 만족도를 보면 공간을 이용한 일반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이용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문화관심집단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민은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공공도서관, 민간문화시설-사설 문화센터, 갤러리, 민간공연장의 만족도가 높았다. 문화관심집단은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민간문화시설-공방, 서점, 작은도서관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림 4]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률

['경험 있음' 응답 비율]



[표 2]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률

[단위 : %]

		일반시민				문화관심집단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빈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빈도	
				1-2회	3회 이상			1-2회	3회 이상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92.5	7.5	6.9	0.6	47.8	52.2	36.4	15.8
	박물관/미술관	86.9	13.2	11.5	1.7	40.0	60.0	44.6	15.4
	공공도서관	83.1	16.9	8.2	8.7	46.6	53.4	27.0	26.4
	문화원	97.5	2.5	1.9	0.6	74.2	25.8	19.8	6.0
	복지관/청소년수련관	97.0	3.0	1.8	1.2	76.6	23.4	17.4	6.0
	생활문화센터	96.8	3.3	2.2	1.1	68.8	31.2	20.4	10.8
	주민자치센터	91.0	9.1	6.5	2.6	73.4	26.6	19.6	7.0
민간문화시설	민간 공연장	87.0	13.0	8.8	4.2	56.6	43.4	32.8	10.6
	갤러리	94.0	6.0	5.1	0.9	53.2	46.8	34.6	12.2
	작은도서관	91.6	8.4	5.7	2.7	61.0	39.0	25.6	13.4
	공방	93.2	6.8	5.4	1.4	70.4	29.6	22.6	7.0
	서점	77.0	23.0	14.5	8.5	43.0	57.0	37.4	19.6
	복합문화공간	92.2	7.9	5.5	2.4	48.4	51.6	42.2	9.4
	사설 문화센터	96.9	3.1	1.6	1.6	72.4	27.6	21.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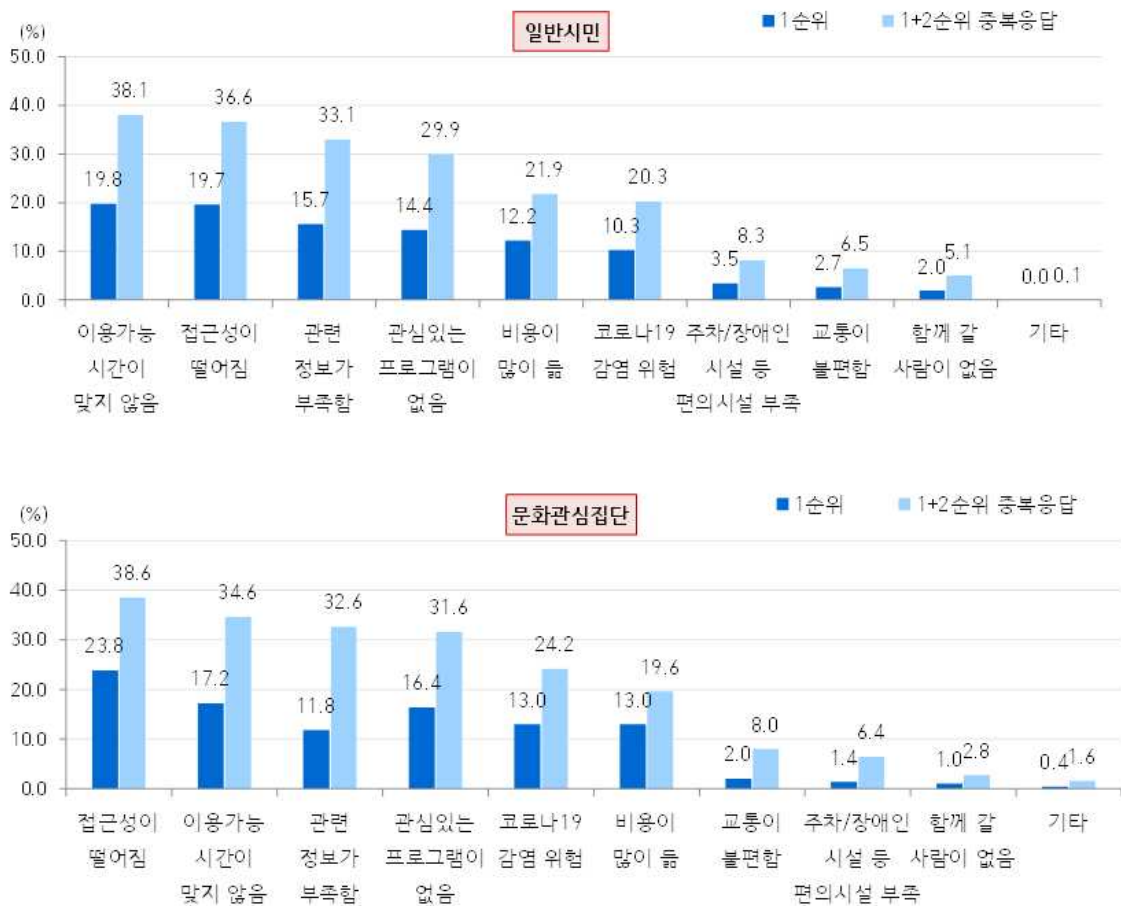
[표 3] 문화예술공간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일반시민			문화관심집단		
		불만족	만족	6점 평균(점)	불만족	만족	6점 평균(점)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4.0	96.0	4.70	19.2	80.8	4.24
	박물관/미술관	3.8	96.2	4.60	11.7	88.3	4.36
	공공도서관	3.0	97.0	4.65	15.0	85.0	4.41
	문화원	2.0	98.0	4.76	26.4	73.6	4.10
	복지관/청소년수련관	6.7	93.3	4.57	21.4	78.6	4.09
	생활문화센터	9.2	90.8	4.38	21.8	78.2	4.14
	주민자치센터	4.4	95.6	4.61	24.1	75.9	4.10
민간문화시설	민간 공연장	9.2	90.8	4.59	21.2	78.8	4.09
	갤러리	8.3	91.7	4.61	13.7	86.3	4.27
	작은도서관	8.9	91.1	4.28	14.9	85.1	4.34
	공방	8.1	91.9	4.39	13.5	86.5	4.43
	서점	6.3	93.7	4.44	15.1	84.9	4.38
	복합문화공간	7.6	92.4	4.52	12.8	87.2	4.33
	사설 문화센터	6.5	93.5	4.63	19.6	80.4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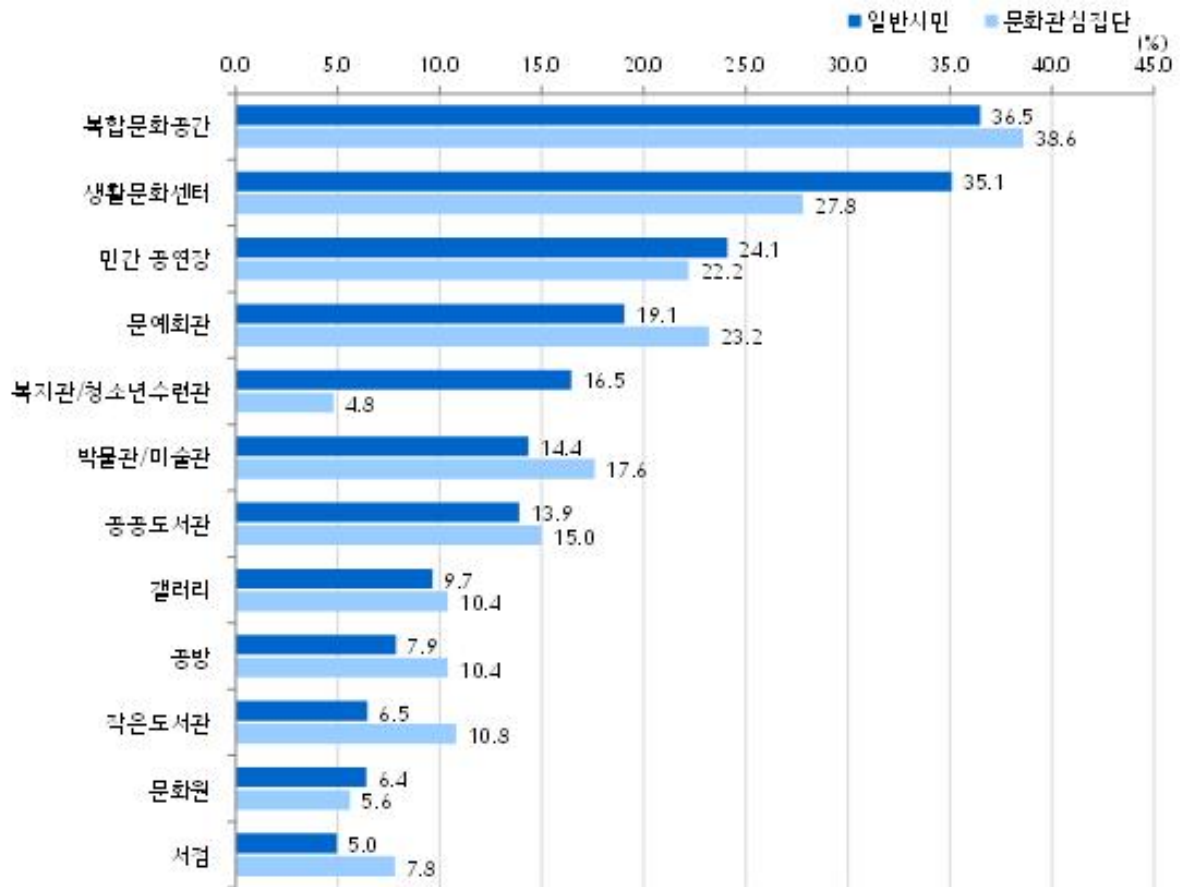
문화예술공간 이용 시 어려움을 살펴보면 일반시민은 1순위가 이용가능시간이 맞지 않음, 2순위가 접근성이 떨어짐이고 3순위가 관련정보 부족이었다. 문화관심집단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짐이 1순위, 2순위가 이용가능시간이 맞지 않음, 3순위가 관련정보가 부족함으로써 공간 이용에 있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여건과 정보취득의 불균형을 장애물로 응답하고 있다.

[그림 5] 문화예술공간 이용 시 어려움



문화생활을 위해서 확충되기를 바라는 문화예술공간은 일반시민들은 복합문화공간을 1순위로 꼽았다. 생활문화센터와 민간공연장이 그 뒤를 이었다. 문화관심집단은 복합문화공간,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을 꼽았다. 민간문화시설에서는 복합문화공간과 민간 공연장이 높은 의향을 보인 공간으로 꼽혔다.

[그림 6] 확충되기를 바라는 문화공간



○ 공간 분포의 불균형을 메워줄 수 있는 민간 문화공간의 중요성

앞선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공간 분포의 불균형이 결국 문화향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가능시간과 접근성, 정보부족이 문화공간 이용의 장애물이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부산연구원에서는 15분 도시 구현을 위하여 거점시설에 대한 서비스거리를 측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거점문화시설의 서비스거리를 조사한 결과 15분 이상 서비스거리가 도출된 지역들이 특정 권역에 분포해 있었다. 물론 이 서비스거리에서 민간 공연장, 공방, 서점 등의 민간 공간에 대한 서비스거리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앞으로 문화서비스거리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민간 문화공간들이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4. 민간 문화공간에 대한 공적 지원 방향에 대하여

○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앞서 언급했던 민간 문화공간이 지역에서 제3의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적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민간 문화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조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21년 기준 총 131건이 있다. ‘지역서점’을 ‘지역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설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지역서점 지원, 지역서점 위원회 설치, 지역서점 인증,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

- 2021년 5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는 민간 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 공연장은 공공공연장을 제외한 공연장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 진흥계획 수립, 진흥사업(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공연예술활동의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공연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 공연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연예술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설치 운영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조례들은 특정 영역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다음 소개할 조례는 소규모 민간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례이다.

▷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 인천광역시와 대구 수성구의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조례’는 지역의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작은 문화공간을 문화예술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작은문화공간 지원 사업(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조성 및 운영 사업), 작은문화공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 고양시 문화공간 활성화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 예술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문화공간을 정의하고,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화 사업, 우수 문화공간 지정,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사업
- 우수 문화공간 지원사업
- 문화공간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지역서점의 경우 생활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공연장의 경우 공연법에 근거한 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 갤러리카페, 공방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시설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의 근거는 아직 많지 않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공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면서 진화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는 문화공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해당되는 문화공간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 영역 또한 프로그램, 일회성 지원보다는 운영비 지원 및 컨설팅, 네트워크 구성, 기초지자체와의 연결 등 다각도의 지원 방향을 제도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문화공간의 뿌리내림을 위한 다양한 연결고리 만들기

최근 부산시에서는 300석 미만의 민간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지원 내용이 공간 운영비에 해당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는데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간이 지속가능하게 지역에 자리매김하는데에는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에서 민간문화공간이 제3의 장소이자 문화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시에서는 2018년부터 ‘천개의 문화오아시스’라는 사업을 실행하면서 지역의 소규모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동네방네아지트’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문화공간을 지역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과 시민문화동아리를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금정문화재단에서는 민간문화공간네트워크 ‘스타트(St.Art!)’를 운영해본 바 있다.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 문화공간 운영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민간 문화공간 운영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위한 도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는 단골공간을, 문화공간에게는 단골손님을 이어주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문화공간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 시민과 공간을 이어주는 지원, 공간 간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로 지역과 공간을 이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가며

제3의 장소에서 중요한 지점은 서사의 교차 형성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스킨십과 교류가 일어나면서 나의 서사가 이웃과 마을의 서사와 교차점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제3의 장소인 것이다. 최근 2년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비장소보다는 인류학적 장소이자 제3의 장소에 대한 소중함과 안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 문화공간이 계속 늘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민간 문화공간은 상업성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공공지원에서는 배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역 곳곳에서 문화안전망으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제3의 장소로 기능함으로써 문화공간이 공공적 가치를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 문화공간이 다 품어내지 못하는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결국 지역에서 ‘문화적인 안전가옥’으로 민간 문화공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민간 문화공간을 지원할 것인지 서로의 상상을 모아야 한다.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문화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화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상에서 시작하되, 앞으로 문화공간에서 일어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지원의 방향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2020.

부산문화재단,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2021.

마르크 오제, 비장소, 아카넷, 2018.

레이 올든버그, 제3의 장소, 풀빛, 2019.

- 발 제 II -

민간 복합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김은숙
스페이스 움 대표, 문화기획가



민간 운영 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제언

김 은 숙 (스페이스움 대표, 문화기획가)

- 서언
- 민간 문화 공간의 필요성과 시장성
- 지역의 풀뿌리 문화공간의 진단과 현안
- 민간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언
 - 민간 문화공간 실태조사
 -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 공동의 홍보 플랫폼 구축
 -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 결언



▶ 서언

작은 문화공간들은 무엇보다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예술가와 시민이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 곳에서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의 장을 펼치고,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일상의 문화공간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리라는 믿음 속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묵묵히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무런 지원 없이 경영자의 노력으로만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공공 문화공간의 필요성과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적 자산인 민간 문화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야 할 때이다. 이에 지역문화운동으로서의 민간 문화공간을 10년 넘게 경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성과,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문화공간들의 운영 현황을 보고 느낀 점들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민간 문화 공간의 필요성과 시장성

예술문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 발전의 토대는 무엇이고, 시민은 그 성과물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 예술 공급자와 수요자는 어떻게 만나고, 그 만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할까. 문화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해본다. 특히 2년간 벗어나지 못하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온택트, 랜선, 등 온라인 공연이 새로운 대세로 떠 오르면서, 장소감의 상실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은 꼭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 하고 싶다.

왜냐하면, 공간은 예술창작거점으로서 예술가들에게 예술 창작의 안정적 장소제공과 예술가와 시민이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시민과 시민이, 세대간 계층간 만남의 광장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향유 공간의 역할로서 일상적인 문화예술감상,교육,창작활동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자극이 일어난다.

커뮤니티 연결의 역할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성 회복, 지속가능한 마을 환경 구축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정서적 안정과 현대인의 고독에서 벗어나 교감의 장이 되는 것이므로

공간에는 힘이 있으며 결국에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답인 것이다.

필자가 문화공간을 오픈한 2011년에 비해 11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공간들이 문을 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공간들의 스타일에 맞게 운영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전시, 공연, 체험 등을 자연스레 녹인 소셜 스페이스이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그것만 보더라도 특색있는 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 늘고 있고, 그들의 니즈를 잘 캐치해서 접

근한다면 건강한 문화산업의 한 축을 이루리라 본다. 모종린교수는 「골목자본론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등의 저서에서 강조해왔고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에 부상하는 로컬기반 생활권 경제형태를 들여다 보자. 온라인(Untact), 집(Hometact), 동네(Localact) 등 일상의 재발견으로 인해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앵커스페이스로서의 문화공간 시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권역별로 흩어져 자생하고 있는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문화공간들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모이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동네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다.

지역별로 여러 형태의 지역공동체가 있지만, 문화예술을 매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보다 많은 지역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요한 자산인 문화공간의 현주소를 바로 알고 현안들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실행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 지역의 풀뿌리 문화공간의 진단과 현안

부산지역의 서점, 공방, 갤러리, 민간 공연장 등 여러 카테고리의 문화공간들을 다 언급하기엔 미력하여 필자가 경험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민간이면서 정기적인 공연을 기획 운영하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그 현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로 구군별 공공문화기반시설과 민간 문화공간 분포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참고바람)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온 곳에서부터 이제 막 오픈한 공연장까지, 그리고 장르도 다양하며 공간의 사업자 형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거의 공통된 점은 공간운영자가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이다. 예술인을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여러 컨디션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음악회를 진행하고 사례하는 등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직접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아니라 공간 운영을 위한 임대비 및 유지비, 홍보비, 출연료 등 소소하게 드는 운영비까지 보태면 매달 적잖은 예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표들은 공간 운영만으론 수익이 안 돼 행사대행, 랫슨, 강의, 사회나 해설자, 카페운영, 연주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회와 대관을 하는 민간 운영 문화공간은 현재 부산에만 25개소 가량 파악된다. 그 중 다음 표와 같이 정기공연을 하는 곳 일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이다.(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고 자료를 받지 못해 언급이 안 된 공간들이 더 많음을 밝힌다)

공간명	공연회수	출연자수	관객수	현안
스페이스옴	444회 (국제교류음악회 26회포함)	2,040명	21,200명	소공연장연합회에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마련 (지자체,교육청,지역아동센터,문화재단 및 공공문화기관)
음악당라운	214회	400명	8200명	연주자 개런티, 공연 준비에 많은 지 출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인해 전문 인력 고용이 힘들 전문인력지원정책이 필요
게네랄파우제	690회	290명	10,600명	적은 인력으로 해야할 일이 너무 많고 공간운영자의 피로감 누적 홍보물 제작, sns 운영, 홍보수단개발 및 유지
파나카 메뉴	90회	320명	500명	연주자들의 출연비 마련과 홍보시스 템 구축이 절실함
나놀락	26회	80명	650명	공연을 준비하며 관객을 모으는 일이 힘들고, 공연 운영과 출연비등 재정 지 원이 필요함
리우 쌀드공세호	17회	340명	700명	연주자들에게 공연장으로서의 최적의 컨디션 유지에 애로사항이 있음
봄 아트홀	93회	220명	900명	홍보물 제작, sns 운영, 홍보수단개발 및 유지가 어려움
가람아트홀, 라움프라다바코, 뮤지크바움, 엘림아트홀, 어댑터플레이스, 필슈파스, 프라미스랜드, 기 타고라스, 유로하임, 문화공간 목...등의 작은 문화공간들을 다 취합하면 대략 5000여명의 예술인의 무대를 제공해왔으며, 약 10만명 가량의 시민 및 학생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의 예술 경험을 선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상원 예술애호가이자 문화공간 후원자의 추천 공간 소개**

	게네랄파우제 (대표 김다은) 중구 신창동1가 32-1, 2층		라움 프라다바코 (대표 박호경) 수영구 광안해변로 370번길 9-8, 4층
합주곡에서 모든 악기들이 일제 쉼을 뜻하는 General Pause. 가게에 오시는 손님 모두가 편안 히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클래식 음악 공연과 문학작품을 멋진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함께 나누는 살롱콘서트	
	나놀락 (대표 박선영) 해운대구 재송1로 11, 2층		리우 쌀드공세호 (대표 이영우) 금정구 온천정로 132
음악으로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이란 뜻의 나놀락, 연주자와 관객들의 정다운 소통공간을 지향.		예술과 음악을 좋아하고 소통과 어울림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	

	스페이스움 (대표 김은숙) 동래구 명륜로 106		문화공간 봄 금정구 금정로 42-1
새싹을 의미하는 <움>10년간 매주 음악회를 이어온 살롱콘서트장에서 느껴지는 위로와 감동과 소통, 가까이 다가서는 문화예술의 가치.		문화공간 봄BOMM은 봄spring, 돌봄care, 바라봄look, 봄see의 의미를 담은 따뜻한 공간	
	파나카 베뉴 (대표 이기백) 금정구 금정로 94		음악당 라온 (대표 고민지) 금정구 장전동419-7,3층
1,2층에 맛있는 커피와 음료, 베이커리를 즐기는 카페 공간, 복층으로 이루어진 LP판 장식벽.		순우리말로 '즐거움'을 의미하는 '라온'. 클래식 해설가 고민지 대표의 기획과 해설, 연주자와 관객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필슈페이스 (대표 이환석) 수영구 장대골로 6, B1		유로하임 (대표 김영근) 해운대구 송정동 441-12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 대표와 박다운 피아니스트의 레슨 스튜디오겸, 멋진 공연기획으로 사랑받고 있는 광안리 연주홀		유럽의 어느 하우스콘서트장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하는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부산, 울산에서 활동하는 김영근 지휘자의 살롱콘서트장	
	문화공간 목 (대표 이형목) 중구 광복중앙로 32-1, 2층		기타고라스 (대표 신성진) 수영구 망미로28번길 19, 1층
카페와 연주홀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간목에서는 격주로 목요 음악회를 진행 중		클래식기타를 전문으로 하는 수업과 공연 그리고 책방이 함께 있는 예술의 놀이터로 재미있게 노는 공간을 표방하는 곳	
	수아트홀 (대표 김옥) 해운대구 중동 1로 해운오 피스텔 2층		KSH Art Hall (대표 홍지혜) 수영구 광안해변로 193 티파니 빌딩 6층
110석 규모로 지난 10년간 예술교육과 음악활동을 위한 연주회 개최와 공연장 대관, 기획공연을 진행		홍지혜 대표의 고성현 아트홀은 바다가 보이는 유리창을 무대로 하는 운치있는 연주 및 모임 대관장소	
	가람아트홀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26 가람빌딩 대연동에 위치한 15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최근 이모델링을 마치고 300인치 대형 스크린과 음향,조명을 갖춘 전문공연장이다.		

그리고 예술가와 함께 준비한 공연에 매번 관객을 모으고 홍보하는 일이 정말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매주 잔치 하는 날에 손님이 없을 까봐 늘 조바심을 내어가며 알음알음 알리고 있다. 그리고 연주자들의 출연료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물론 연주자들도 지역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입장으로 평소의 댓가 보다는 낮은 개런티로도 동참 해주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공연장 입장에선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후원이나 고정적인 수입없인 경영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여러모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등록하지 않다. 우리 지역의 연주자들에게 당당하게 정당한 댓가를 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지원사업이 있기는 하다. 민간소공연장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은 민간소공연장(객석수 300석미만)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로 공모마감일 이전 등록 완료한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해 지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들은 카페나 스튜디오, 연습실 등의 형태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등록공연장에 한해 민간소공연장 지원사업이 진행되다보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으로 인가 받기위해 규정에 맞게 재투자 되어야하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과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애로점이 있다. 이렇듯 오롯이 민간 문화공간 운영자의 몫 이었는데, 너무나 반갑게 작년 12월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지원사업(부산시 재난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등록 및 미등록공연장을 대상으로 35개 기관에 총 304,780,400원을 지원받았다. 이때 한 기관당 700만원~1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나름 외로운 싸움을 버텨오던 운영자들은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그 동안의 노고를 인정받는 듯한 느낌에 감격해 했다. 그도 그럴것이 2년 넘게 코로나-19 방역강화로 ‘비등록공연장’ ‘공연외 시설’ 공연불가 기간동안 문을 닫았다 열었다, 공연을 연기했다 취소했다를 반복하며 절망적인 순간을 버텨 왔기 때문이다.

운영주체가 민간인 문화공간이지만 공적인 역할과 순기능이 검증된 문화 공간이라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문화정책의 유연성과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홍보 마케팅이나 공동의 기획, 공유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때, 선도적인 문화, 전인하는 문화 토양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 민간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언

원론적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문화공간의 필요성과 여러 현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 할 때, 감안해야 할 사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민간 문화공간 실태조사

문화재단에서 2012-2020년에 걸쳐 6개 권역별로 나눠서 조사한 문화공간 지표조사에서 공연예술(공연장,문예회관), 시각예술(박물관,미술관,갤러리), 예술창작(창작공간,공연예술 연습공간,메이커스페이스), 생활문화(도서관,문화원,생활문화센터,영화관,지역서점,공방), 문화재 및 기념시설 (문화재전수과, 기념시설) 지표조사를 했다.

여기에서 많은 부분 빠져있는 각 분야별 권역별로 민간운영 공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있는 운영자나 예술인의 입장에서 구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

행될 때 활성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 분야의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기획, 창작, 실연, 그리고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간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까지 이어져 서로서로 필요한 매칭을 돕는 매개기능을 유관기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이 1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2%는 연 수입이 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대다수의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들이 부산 외 국내지역 활동을 희망한다고 밝혀 지역 예술계 인력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고 한다. 좀 더 치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공모·심사하고 지원 후 관리감독 수준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공간들이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어 창작, 실연, 문화컨텐츠 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예술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근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민간이 운영하는 소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조례 개선안이 시급하다. 비록 공연장 등록은 하지 못했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들의 대표들의 마인드는 이미 문화공간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래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공간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한 손실은 당장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곳을 운영한 사람과 활동했던 예술가들, 그리고 공간을 이용하고 향유해오던 시민 개개인에게는 아주 큰 허탈감으로 다가온다.

그런 면에서 민간 운영체이지만, 공적인 역할과 순기능이 검증된 공간이라면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간에 직접적인 지원이 당장 어렵다면, 그곳을 이용하게 되는 예술가에게 지원을 하거나, 문화바우처같은 제도도 이용 가능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확장해 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차원에서의 파견 사업으로 예술인의 공연 대관료 지원, 기획·음향·조명·영상·디자이너 등등의 예술인 파견사업 등으로 작은 문화공간들에게 수혈을 해준다면 더욱 생기있게 활기차게 운영 될 것이다.

• 공동의 홍보 플랫폼 구축

각 공간들의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함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모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면 좋겠다. 공급자쪽에서는 좋은 컨텐츠는 준비되었으나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수요자쪽에서는 메이저 공연장이나 공연 외에 바로 가까이 있는 슬세권의 문화공간들에서 진행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다. 공간별로 직접 진행하기엔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로 부담이 크다. 부산문화회관에서 매월 발간하는 예술에의 초대, 신문이나 지역방송사의 단신 등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당장 가능한 것은 구군별 홈페이지와 문화회관과 같은 플랫

폼부터 먼저 서로서로 링크를 공유하고 홍보해준다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음알음 공간을 알리고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은 문화공간들이 연계하여 원위크데이나 원먼스데이 페스티벌을 각자의 공간에서 릴레이로 하고 하루정도 더 넓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연합해서 또 릴레이로 축제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 공간을 알리면 효과적일 것이다. 먼저, 정기적인 공연을 진행 하고 있는 공연장 10곳 정도가 먼저 문화공간연합회로 창립하여 함께 공동의 홍보와 공동의 이슈들의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공간들을 참여시켜 나갈 것이다.

•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예술문화산업은 굉장히 유기적인 산업이고 문화공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지역거점공간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찾아가고 발전시키고 이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기획자도 양성하고 문화예술, 교육, 관광, 일자리경제,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등등 함께 소통해야만 한다.

문화재단이나 각 지자체들과 적극적인 연계 시스템으로 문화공유, 생활문화, 문화다양성사업 등등을 함께 풀어갈 현장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인해 신진예술가들의 인프라가 확보돼 있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공연들로 신진 기획가의 실습 장소로 공연예술 기술자들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이슈도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매 달 마지막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각 민간 문화공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문화관광과들이 있는데, 주무관들은 1~2년 단위로 순환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안다. 문화예술의 전문인력도 아닌 보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 때 그 지역에 있는 문화공간들과 연계해 지역의 예술인을 매칭해 주고, 기획에 도움을 준다면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울 수 있을 것이다.

영도 토박이인 음악당 라온 대표는 영도문화도시센터와 연계해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는 특별한 60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영도 구석 구석의 장소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음악회로 위로와 감동을 전한 기획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밖 예술교육프로그램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문화회관, 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폭넓은 협력을 이뤄낸다면 문화도시로서의 부산이 문화경쟁력이 올라 갈 것이다.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는 가운데, 작은 솔루션하나라도 적용해 보고자하는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 결론

문화공간 나눌락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문화잡지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기고된 글<살롱,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다>이 문화공간의 가치에 대해 정말 잘 표현해 준 글이라 생각해 인용하자면,

“메디치효과란 전혀 관련 없는 영역의 지식이 상호 결합해 혁신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인문학과 예술을 조건 없이 후원함으로써 르네상스를 꽃피운 메디치 가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메디치 가문에서 시집온 카트린 드 메디치는 앙리 2세의 왕비이자 프랑수아 2세, 샤를 9세, 앙리 3세의 어머니로 로렌 시간 프랑스 궁정에 머물렀다. 루이 14세 시기 화려하게 꽃핀 프랑스의 궁정문화는 카트린이 가져온 이탈리아의 세련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08년 프랑스 파리에 처음으로 생긴 살롱은 이탈리아 궁정의 살로네(salone)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중략.....

살롱의 본질은 무엇일까, 귀족적 생활 양식이든 문화예술이든, 혹은 정치 담론이든 그 본질은 대화와 소통의 장이러는데 있다. 살롱은 매체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살롱은 신문방송뿐만 아니라 매체가 다양해지고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물론 살롱이라는 옛 이름 대신 ‘문화공간’이라는 명칭으로 말이다. 대화와 소통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셈인데도 이러한 문화공간들이 여전히 사랑받는 까닭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소통이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을 매개하는 것은 문화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취향이며, 현대인들은 취향을 나누면서도 부담 없는 인간관계를 필요로 한다. 현대인들에게는 전복시켜야 할 구 체제는 없지만 하나의 경로만으로는 삶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막막함,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절실함이 과거의 어떤 억압보다 더 무겁게 삶을 짓누른다.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 전시회, 토론회, 다이닝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현대인들의 이러한 고민과 정서를 수렴하고 반영한다. 메디치 가문이 예술과 철학, 과학의 융합으로 르네상스라는 혁신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 곁의 이 작은 문화공간들은 취향에 맞는 문화와 예술, 휴식과 여유, 경쾌한 어울림을 선사하며 우리의 일상에 르네상스를 일군다. 어쩌면 이 작은 문화공간들 속에서 프랑스 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했던 예술학박사 남영희씨의 글)

공간의 형태가 중요한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6.25전쟁으로 혼란한 시대에 부산으로 피란 온 문인들은 광복동 ‘밀다원’이라는 다방으로 모여든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원고를 쓰기도하고 시화전도 하는 전시장이기도 했다. 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문화의 3대 상징으로 루브르박물관, 프랑스 요리와 함께 카페를 뜻하는 비스트로를 꼽는다고 한다. 앞의 인용 글처럼 더 오래 전에는 프랑스 살롱 공간이 18세기 계몽 사상을 창출하는 산실과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것이 프랑스대혁명의 사상적 토대 형성의 분수대 역할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

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미래는 여가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사실은 여가야말로 인간이 문화적인 삶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놀이터로서의 문화공간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확행을 맛보며 상상하며 이루어 내는 미래야말로 희망적이고 행복할 거 같지 않은가.

실핏줄과 같은 작은 문화 공간들은 지금도 박동하고 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문화공간에서의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예술적 경험을 한 아이와 시민이 문화 애호가 되고,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 소비자가 될 때 예술가들은 더 훌륭한 예술 활동들로 보답하는 ‘선순환의 플랫폼’이 구축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의 상업적인 공간이지만 공적인 역할과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지역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성화하는데 관련 공기관과 단체들이 이 공간들을 활용할 뿐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방안과 문화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 토론문 I -

당장 표는 안 나지만 정말 중요한 일

조봉권

국제신문 기획에디터 겸 기획탐사에디터부장



당장 표는 안 나지만 정말 중요한 일

조봉권. 국제신문 기획에디터 겸 기획탐사에디터부장

정영민 작가는 동광동 백년어서원에서 만남과 공부를 시작하고 글을 썼으며 수영동 동네책방 한타를 자주 찾은 것이 한 계기가 돼 ‘애뜻한 사물들’이라는 책을 내고 작가가 됐다.(작가 탄생) 장애가 있는 그에게는 세상 거의 모든 사물이 애뜻한 존재였는데, 이 책은 통영 남해의봄날 출판사가 기획 출판했다. 백년어서원 프로그램을 취재 갔을 때 만나곤 했던 한 대학생도 평론가가 됐고 저자가 됐다.(평론가 탄생)

인문공간 나다의 기억도 살아난다. 예술문화 후원으로 잘 알려진 방파제횃집이 마련한 지하공간에 고음악 전문가 박창호 씨와 출판편집인 출신 신은정 씨 부부가 맞잡나게 운영했다. 그곳 음악회는 클래식 중에서도 고음악을 듣는 드문 자리였다. 부산 음악인을 초대해 연주도 했다. 프랑스에서 오래 살며 와인 농장을 가진 친구를 많이 사귄 덕에 와인에 정통했던 박창호 씨 안내에 따라 와인을 주눅들지 않고 즐길 수 있었다.(공연·강좌·생활문화)

한국인 최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원로 피아니스트 한동일 선생은 “이제 나의 카네기홀은 한국의 지역에 있다”고 선언했는데 의사 정재성 대표가 운영하는 금정구 문화공간 봄에서 2019년 멋진 연주를 했다.(공연·인문학)

부산에서 인문공간형 서점의 원조 격인 인디고서원은 여전히 잡지를 2종 펴낸다. (인문·교육) 이민아 시인이 운영하는 낭독서점 시집의 활동을 통해 할머니들이 시를 쓰기 시작했다.(예술교육) 어린이책 전문 동네서점 연제구 거제동 책과아이들이 쌓은 성과는 눈부시다. 좋은 책, 좋은 전시,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했고 한때 전국동네 책방네트워크도 이끌었다.(어린이·지역사회인문활동)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김훈과 김주영 윤정규 등 수많은 문인 초청 강좌가 열렸다.(문학) 서울립시낭송회는 여기서 오랜 세월 열다가 바로 곁 소민아트홀로 옮겼다.(문학) 문화유목민 정두환 음악가의 해설이 있는 화요음악회는 20년 넘게 이어지며 800회를 향하는데 부산문화회관,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에서 진행하다 최근 영광도서 문화홀이 받았다.(음악)

원도심 중앙동 동네서점 주책공사에서 책을 고르면 모르는 사이인 사장님은 좋은 책을 고르셨네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왹지 흠흠 그럼요 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 옆 동네서점 문우당에 가면 새로 만든 굿즈를 이것저것 챙겨준다.(동네책방만의 체험과 교감)

프라미스랜드 박후진 박혜인 대표를 만날 때면 개신교인으로서 오래 헌신한 공간 사역이 미덥고 멋지다.(종교) 고운사진갤러리에는 최근엔 못 가봤지만, 여기서 산 사진집은 내 소중한 예술자산이다.(사진) 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살풀이춤 추던

프랑스 현대춤 쉐린 바키를 초청했을 때 그 춤은 아름다웠고 덕분에 나는 쉐린과 이야기했다. 몇 년 전 제주도로 간 쉐린이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슬펐다.(인연)

산복도로의 화가 박병재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린 곳은 영주동 산복도로 인문학당 달리였다. 부산항 뷰가 좋은 전시실과 공부방이 멋졌다.(인문·전시)

미술가·무대미술가·시노그래피이며 백철호 씨가 미남교차로 근처에 연 가정집 스타일 마루 스튜디오 갤러리에서는 자주 전시 소식이 온다. 나는 여기서 본 원색 수평선 그림을 꼭 사리라고 마음먹었다. 얼마 전 경성대 연영과 재학생 2명이 아주 실험적인 연극을 했고 백철호 씨가 초대해 전문가 관객이 공간과 어울리는 작품을 극찬했다.(미술·융합)

빈빈과 국제신문 곁 시네바움도 꾸준히 활동했다. 경성대 앞 문화골목은 핫플이었다. 용천지탈소극장 전시관이 술집과 함께 있었다.(미술·연극·주점) 중앙동 또따또가 갤러리는 중앙동 전철역에 5분이 안 걸린다. 여기서 전시를 많이 봤다.(접근성)

‘부산 문화불모지론’이 통용된 적이 있다. 이는 애초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문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있고 함께 작동한다. 첫째 예술 활동 자체와 그런 예술 활동을 좋아하는 태도나 마음이다. 두 번째로 삶의 양식 그 자체를 뜻한다. 삶의 양식이 ‘불모’일 순 없다. 공연예술문화의 불모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공연예술을 별로 안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게 더 낮고 맞다. 문화예술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관점이 더 필요하다.

사람은 즐기려 하고 재미있고 좋은 걸 좋아한다. 공연예술을 덜 즐기는 문화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하며 무얼 더 하는가? 그렇게 들여다보면 인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생긴다. 인문 또한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질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들을 훨씬 더 좋은 예술문화로 끌어당기기 위해 어떻게 할까? 작은 민간 문화공간이 여기서 등장한다. ‘서로’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해놓고, 작은 민간 문화공간을 토론하고 대안을 검토해보자.

1. 정책과 행정(부산시를 중심으로)은 작은 민간 문화공간의 활동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규모도 작고 길으로는 표시도 잘 안 난다. 그러니 위에 든 예시처럼 여기서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

2.-그래서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은 민간 문화공간은 부산 문화 전체를 떠받치는 실개천이자 버팀목 구실을 한다. 정책이 이를 끌어안아야 한다. 얼마 전 토론회에서 부산 문화정책·시책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기관에서 나온 분이 이렇게 말했다. 예술가의 말씀과 요구는 알지만, 그렇게 이 영역(단체)만 특별히 챙기면 다른 데서 똑같은 요구를 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

3. “1988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에는 일본 기업이 무려 16개 있었다. 지

금 세계 시총 상위 2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다. 2021년 초 기준 상위 10대 기업 중 8곳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기업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4. 세상은 변하는데 체질 개선에는 실패한 사례다. 세상은 소프트와 창의성 중심으로 바뀐다. ‘시민 관점에서 더 세심하게’ 정책 전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바란다.

5. 이렇게 짐작해볼 수 있다. 위에 소개한 다종다양한 작은 민간 문화공간에서 재미를 느낀 사람들은 책을 더 읽고 책모임을 만들고 글을 쓰고 신춘문예에 도전하고 더 큰 공연장에 가고 미술관으로 발을 넓히며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을 더 소개해 창의력·공감력을 선사한다. 이런 선순환이 실개천과 강바닥에서 일어난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을 정량화하기가 힘들 뿐이다. 정책이 이런 쪽으로 스며야 한다.

6. 첫째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작은 민간 문화공간을 중대한 정책 영역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 거대한 것, 랜드마크에만 매달리면 실속이 없고 실패 확률은 높다. 부산이라는 거대도시의 거대한 접근만 있어도 실패하고 세밀한 접근만 있어도 실패한다. 거대한 접근과 세밀한 접근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7. 정책영역으로 수용한다면 ‘어떻게’의 과제가 온다. 기초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더 상세하고, 더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업데이트가 원활한 구조를 짜야 한다.

8. 세심하고 다양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한 동네책방에 취재갔을 때 들었다. “동네책방은 동네 문화사랑방 구실도 하면서 책을 팔아 먹고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을 한다. 공공과 협력할 때가 있다. 공공의 재원과 기획을 통해 우리 서점에서 프로그램을 열면 그 시간에는 영업을 못한다.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쓸 수 없게 돼 있는 건 이해했지만, 사실 그 점이 가장 큰 애로였다. 언젠가 한 공공기관에서 그 영업손실을 이해해줬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에 대해 예산지원이 이뤄졌다. 도움이 되는 시책이었다.”

9. 초기에는 ‘상업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노’가 시의 우려고 이유였다. 그새 환경이 바뀌어 상업 활동을 하면서 공공적 인문 활동을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펼치는 형태가 늘었다. 이전 기준에서 보면 모두 알아서 할 일이다.

10. 조금 ‘충격’인 것은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세심한 지원을 위해 규정을 바꾸거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소식을 들을 때다. 발제자가 소개한 인천의 천개의 문화오아시스지원사업이나 동네방네아지트 같은 사업은 실상 들여다보면 작은 시책이겠지만, 어쨌든 해보려고 바뀌보려는 노력을 한다. 부산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겠지만 분발해 아예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성과가 쌓이면 시민 가슴에 긍지와 자신감이 생긴다.

11. 그래서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 현장 목소리 들으러 가면 ‘이기적인 상인들이 이기적인 주장을 할 것’이란 생각을 행여나 할 수 있는데 안 그렇다.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공공적 가치가 이기게 마련이다. 재정 지원도 모색하자. 경험으로 보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언제나 돈이 없다. 그러나 담당자나 국장님이 관심이나 애

정이 생기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올 때가 꽤 있었다. 여러 번 봤다.

12. 작은 민간 문화공간이 연대하면 예상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협력·확장·공유를 꾀할 수 있다. 정책·행정을 움직일 수도 있다. 단, 사무국(장)이 튼튼해야 하고 핵심 관계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변화는 천천히 올 것이고 조직 구성이나 연대 활동은 힘들 것이다.

13. 장은수 출판평론가의 말을 소개한다. 한 부산 시민이 강연 중 질문했다. 보수동 책방골목을 살릴 길은 없겠는가? 장은수 출판평론가는 안타까워 한숨쉬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가야할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곳에 더는 잘 가지 않는다.” 연대 활동을 통해 시민과 관계를 새로 맺는 방식을 시도·확장할 수 있다.

14. 예컨대 창의적이고 실속 있는 형태로 페스티벌을 기획할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시도는 이뤄져왔다. 관련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 이런 일에는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

15. 작은 민간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많은 분이 경제관념이 별로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냥 이런 일을 하시는 게 행복한 거다. 몇 번 하다 보면 피로와 금전 문제가 누적된다. 이런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16. 실개천이 늘어나야 한다. 이게 원래 표는 안 난다. 근데 표가 좀 나게 해야 한다. 이런 분야에서 여론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민간 문화공간을 새로운 관점과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일은 부산 문화정책의 핵심 과제다. 실개천이 풍부해야 맑은 강물이 모여 바다로 간다. 갔다가 또 돌아온다.

- 토 론 문 II -

부산지역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서승우
[재]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부산지역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서승우

○ 바야흐로 문화분권 시대이다. 부산에서도 지난 2021년 12월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은 ‘문화도시를 통해 본 문화정책의 전환, 지역문화의 지속성 어떻게 준비하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차 원장은 “지역문화를 합하면 한 나라가 되고, 나아가 인류 전체의 문화가 된다”며 “문화정책을 도시정책의 최상위 개념으로 뒤편해야 한다”고 말했다.¹⁾

○ 지역이 강조되는 요즘, 특히 장거리 이동과 대규모 집합에 제한이 있는 팬데믹 시기에 시민들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생활권 내 소규모 문화활동과 여가활동 촉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소규모 문화활동 공간이 활성화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1. 문화적·예술적 측면 : 문화의 창조적 발전, 보급의 장이자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 향수의 장,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등 다기능적 역할을 한다.
2. 사회적·복지적 측면 : 예술가와 향유자, 지역주민 간의 결속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문화권을 증진시키는 공간이다.
3. 경제적·산업적 측면 : 지역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이 집적되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의 가능성이 생기고 해당 공간 및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가 제고된다.

○ 소규모 민간문화공간은 공간 특성상 생활권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지역별 특성 및 문화적 여건이 상이하므로 기초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현재 부산 금정구와 부산진구에만 설립되어 운영 중인 기초 문화재단이 다른 구에도 설립되어 민간 문화공간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바란다.

○ 부산지역의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1.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문화기관의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행사 정보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휴 및 업무협약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1) 부산일보, 오금아기자 “부산 문화정책, 도시정책 최상위 개념으로 뒤편”, 2021.12.7

램에 대한 신뢰가 있어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을까요?

2. 부산지역 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페스티벌 기간 중 민간 문화공간 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하여 규모에 걸 맞는 프로그램이 교환되었으면 합니다. 문예회관 상주단체가 규모를 달리하여 민간 문화공간에서도 공연하고 민간에서 추천한 프로그램이 문예회관에서 공연 또는 전시되면 어떨까요?

3. 2021년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호평을 받은 동네방네 비프의 거점 장소로 각 지역의 민간 문화공간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도 지역의 문화매개 공간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적극 수용할 것 같지 않으세요?

4. 2021년 영화의전당 토요야외콘서트를 통해 금정문화재단에서 추천한 금정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공연을 선보인 사례처럼 민간 문화공간 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 문화예술회관에 추천하면 어떨까요?

- 토 론 문 Ⅲ -

부산지역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모색하다

김혜린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부산지역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모색하다

김혜린(부산광역시의회)

□ 2001년 부산대 앞의 클럽데이

당시 부산대 앞은 각종 공간들로 북적였다. 대학생이 되어 중고등 시절 드나들지 못했던 곳을 마음껏 가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역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클럽데이다. 인터플레이, 무몽크, 쿼, 스테레오포닉 이렇게 4개 공연장이었고, 20여개의 팀이 공연했다. 후일 들은 바로는 클럽데이가 진행될 수 있었던 원천 비용은 담배회사의 홍보비 덕이었다고 한다.

(경성대에서 진행했던 힙합 중심의 클럽데이도, 서울 홍대 앞의 클럽데이도 2000년대 초반에는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역시 전해들었다.)

□ 2010.9~2015.2, 약 5년 간의 생활기획공간 통

역시 민간공간의 핵심은 임대료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애초에 이 공간의 운영은 운영자 3인의 목적에 따라 3가지 색으로 운영되었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이들은 운영보다는 임대료를 만드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싶다. 뜬금없는 공연도 전시도 세미나도 모두 이루어지는 무엇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빈통을 꿈꾸었지만, 임대료의 벽을 넘다넘다 결국 사라졌다.

□ 주태국 한국문화원에서의 근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파견으로 방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10개월간 일했다. 본인은 이 기회를 활용해 방콕의 수많은 공간들을 돌았는데, 태국의 기업문화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문화예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콕에는 음악을 위한 공간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고, 문화공간이라하면 퍼포먼스를 연구하는 그룹부터 특정 장르에 한정하는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음악과 미술은 이미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고 수익도 만들어지는 구조까지 간 것이다. 부러운 면이다.

□ 메세나

그래서 메세나에 주목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기업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서의 예술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예술이 서로 만나야 한다. 대중예술에서는 광고라는 형태로 가장 치열하게 만나고 있는데, 왜 지역에서는 왜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이를 중개하는 문화재단의 역할도 더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의 역할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정부는 전 국민 중에서도 예술인들의 삶에 더 관심을, 지원을 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노출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예술인들의 고충은 아마 그 어떤 집단보다 더 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술인 기본소득 또한 요구해야 한다. 이들의 기본소득은 국민의 한 사람인 예술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적절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술문화공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위해서 이러한 자리도, 요구도 더욱 많아져야 할 일이다. fin-

- 토 론 문 IV -

로젠버그의 법칙

류기정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이사



로젠버그의 법칙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이사 류기정

“부산지역 민간 운영 문화공간 현황과 역할” 과 “민간 운영 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제언” 을 통해 부산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본다.

두 분의 발제문을 보면 공연장의 50%이상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권역에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아 공연문화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행정의 지원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화공간은 생산자와 향유자가 만나는 최전방이며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큰 상황이다.

아래 예시를 통해 예산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고자 한다.

워런 버핏은 미국의 경제계 거물로 기부에 대한 거부정서가 있었고 모든걸 물질적인 수치로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부 요청을 받을 때 마다 지금은 기부하는 것보다 투자로 돈을 불릴 수 있을 만큼 불려서 죽은 뒤에 기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기부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로젠버그가 사설을 통해 지금 기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투자로 생기는 수익보다 클 수 있다며 워런 버핏의 평소 생각을 반박하며 기부에 동참할 것을 설득 했다. 즉 100만달러를 투자해 10년 뒤 1억달러의 수익보단 지금 당장 100만달러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해 10년 뒤에 낼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워런 버핏은 로젠버그의 논리적인 글로 인해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재단을 설립해 지원하는 것보단 빌&메린다 게이츠재단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판단해 자신의 재산을 빌&메린다 게이츠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경제적 논리에 익숙한 사회라 문화예술도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지원해서 사회적으로 얻게되는 수익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싶다.

MEMO

MEMO